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方言의 反復複合副詞 構造 研究

指導教授 金 洪 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姜 公 宅

1986年度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 構造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姜 公 宅

指導教授 金 洪 植

1986年 月 日

姜公宅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1986年 月 日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1
2. 研究의 範圍	2
II. 構造 分析	6
1. 造語面	6
1. 1. 造語類型	6
1. 2. 統辭的 意味機能	15
2. 形態面	20
2. 1. 象徵音韻 分析	20
2. 2. 末音形態部 分析	22
3. 音韻面	29
3. 1. 母音의 對應	29
3. 2. 子音의 對應	40
3. 3. 母音調和의 變遷	49
III. 結 論	55
o 參考文獻	57
o 英文要約	60

I. 序 論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1.1. 絶海孤島라는 地域의 特殊性을 가지고 있는 濟州島는 韓半島의 他方言인 全羅·慶尙 方言들과는 쉽게 區別되어 歷史的 地理的 社會的 要因으로 인하여 稀貴하고도 特殊한 語彙들이 많이 保存되어 있다. 濟州 方言이 嶺南 諸方言들과는 다른 獨特한 差異를 지니고 있음은 오래전서부터 記錄되어 있다.¹⁾

濟州 方言에 對한 研究는 小倉進平(1911年)을 비롯하여 많은 國內外學者들의 關心 속에서 現今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外部로부터의 文化的, 社會的인 影響과 教育의 急進的인 發達로 인하여 점차 濟州 方言의 特異한 資質이 破壞되어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濟州 方言에서 特異하다 할 수 있는 점은 副詞의 豊富性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擬態語·擬聲語(意味論的인 面에서 본 分類)들이 發達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擬態語·擬聲語들은 많은 경우가 同一한 語根이나 語幹의 反復으로 이루어진 反復複合 形式을 취하고 있다. 英語에서도 反復複合語는 거의 擬聲語에 限定되어 있다는 것과 共通된 점²⁾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濟州 方言 중에서도 反復複合 形式을 取하는 反復複合副詞를 대상으로 하여 構造를 分析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特質을 糾明함에 그 目的을 두었다.

1.2. 그 語幹의 直接 構成成分(I C)이 모두 語幹이거나 語根 또는 그보다 큰 言語 形式인 單語를 複合語(compound word)라 한다.³⁾ 그것이 두 다른 言語 形式의 複合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形式의 反復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一般複

1) 金萬希(1393):「襄海原辭錄」, “始入耽羅仙隣水國, 生而澁語.”

金 淨(1520):「濟州風土錄」, “土人語音 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2) Marchant, H. (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München, p.83. 李翊燮(1983):「現代國語의 反復複合語의 構造」, p. 42. 再引用.

3) 李翊燮(1965): “國語複合名詞의 I C 分析”, 「國語國文學」 30號, p. 121.

合語와 區別하여 反復複合語로 認識하고 있다.⁴⁾ 이는 종래에 設定하였던 概念 즉 獨立性이 있는 單語나 또는 語源的 語根이 重復되어 結合하는 경우를 흔히 疊語(duplication)라 불렀고, 同一한 語音이 重復되는 경우에는 同音疊語, 音群이 重疊하는 경우를 類音疊語라 하여 複合語와 對立的으로 認識한 점을 止揚한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여러 學者들의 研究에 힘입어 종래의 疊用副詞라 일컬었던 일련의 무리들은 同一한 語根이나 語幹의 反復形式을 취하는 形態들이기에 反復複合副詞에 包含시키고, 그 構成의 一部가 變貌를 일으키는 形態도 여기에 包含시켰다. 그리하여 이 反復複合副詞를 造語面, 形態面, 音韻面の 세 分野로 나누어 分析 考察하여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構造的 特徵을 드러내고자 한다.

本 研究의 資料들로는 文獻化된 것들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외 筆者가 直接 일상 發話 狀況에서 調查한 것들로 補充했다.

2. 研究의 範圍

2.1.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範圍가 어디까지 限定되며 어떠한 갈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問題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즉 反復複合副詞의 實在的이고 具體的인 概念이 어떻게 定義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反復複合副詞의 構成 成分의 反復이 어떻게 形態上으로 變貌 樣相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 範圍를 限定할 수 있다.

反復複合副詞는 두 言語 形式의 反復形態이므로 便宜上 反復의 앞부분을 'X', 뒷부분을 'Y'라 하기도 한다. 象徴的 部問에서 이 'X·Y'와의 關係는 어떠한 規則性을 띠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다만 우연히 實在 世界에서 外延이 이러한

4) 李翊燮(1983) : op. cit., p.42.

5) 金榮敦(1965) : 「濟州島民謠研究(上)」

朴用厚(1960) : 「濟州方言研究」

石宙明(1947) : 「濟州島方言集」

玄容駿(1980) : 「濟州島巫俗資料事典」

玄平孝(1962) :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資料篇)」

形式으로 되어 있는 것뿐⁶⁾이라 한다.

- (1) 질강질강, 지락지락, 으삼으삼
오막오막, 졸락졸락, 슬강슬강
비롱비롱, 포롱포롱, 후롱후롱
능글능글, 을근을근, 수왕수왕
물랑물랑, 발탕발탕, 솔랑솔랑

- (2) 오론도론, 어숫비숫, 어듬더듬
악담부담, 본숭만숭, 이쨍저쨍
오글랑다글랑, 여부룩스부룩
홍창망창, 어장바장, 왈랑발랑

以上에서 例(1)이 XX 形態들인 文字 그대로의 反復複合副詞로서 이를 單純反復複合副詞라 하고, XY 形態들인 (2)의 例들을 XX 形態와 類似함으로 類似反復複合副詞로 分類하여 부르기로 한다. 그러므로 反復複合副詞의 範圍 問題는 XY形態인 類似反復複合副詞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解決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類似反復複合副詞라 할 수 있는 XY形態들의 類型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홍창망창, 왈강달강, 오진조진
와삭바삭, 왈각달각, 와쌩파쌩
울멍실멍, 알롱달롱, 갈산절산
아리롱다리롱, 능활낭활
심숭삼숭, 어상바상, 어숙미숙
얼트락달트락, 오그랑다그랑
웁그랑맹그랑, 이몽지몽, 흥글망글

6) 金智弘(1986:68)에서 이 'X·Y'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 1) XX ⇔ X: 어둑(어둑), 시들(시들), 휘청(휘청)
- 2) XY → X: 알뜰살뜰, 을긋볼긋, 울통불통
- 3) XY → $\begin{matrix} X \\ Y \end{matrix}$: 알뽕달뽕, 어숫비숫, 울룩볼룩
- 4) XY ⇔ $\begin{matrix} X \\ Y \end{matrix}$: 으시므시, 아기자기, 얼기설기

이들 (3)의 形態들은 X·Y가 音聲과 意味에 있어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形態들이다.

- (4) 이영저영, 들멍날멍, 왓닥갓닥
즉금살금, 차일피일, 갈판말판
본숭만숭, 업곡안곡, 들락날락
들곰날곰, 갈산절산, 오르락내리락

(4)의 形態들은 X·Y가 音聲과 關聯을 가지면서 意味上으로는 相對의 것들이다.

- (5) 비비둥둥, 꼴꼴히, 그직아시날또아시날,
꽃꽃내, 들들이, 비비비
번지르르, 바르르, 우르르, 드리드락내트락

(5)는 (3)과 (4)에 包含할 수 없는 기타의 形態들이다.

이러한 分類를 通해 反復複合副詞에서 反復되는 言語形式에는 音聲形式의 反復과 意味內容의 反復이라는 두 部分이 相關됨을 알 수 있다. 종래에 單純히 音聲形式의 反復이라는 觀點에서 벗어나 音聲形式과 意味內容의 反復이라는 觀點에서 反復複合副詞를 보아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 ① 意味와 音聲과의 一定한 關係를 갖는 것.——單純反復複合副詞.
- ② 意味의 關聯 가지면서 서로 相對的인 것.——類似反復複合副詞.
- ③ 기타(①과 ②에 包含할 수 없는 形態).

지금까지 ②는 反復複合副詞에서 除外시켜 왔다. 이는 反復複合副詞의 研究가 象徴語에만 치우친 結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意味內容을 無視한 反復이란 있을 수 없다.⁷⁾ 그래서 넓은 意味의 反復複合副詞로

7) 沈在箕(1982: 419)에 의하면 反復法은 反復되는 音相이 同質的이나 異質的이나에 따라 單純反復과 類似反復으로 나누고 “각둑각둑, 희끗희끗, 움직움직” 등은 單純反復이며, “그럭저럭, 들락날락, 울긋불긋, 이렇저렇, 그런듯만듯, 오락가락, 쥐락펴락, 간등만등” 등은 類似反復이라 하여 ‘들락날락, 그런듯만든, 그럭저럭, 간등만등, 오락가락, 쥐락펴락’ 같이 一部の 뜻을 달리한 형태소(morpheme), 즉 意味上 對立의 關係에 있는 것까지도 包含시키고 있다.

①, ②, ③ 전부를, 좁은 意味의 反復複合副詞로는 ①, ②만을 限定시킬 수 있다. 本稿에서는 주로 ①의 單純反復複合副詞와 ②의 類似反復副詞를 研究의 範圍로 限定하여서 그 構造를 分析하였다.

Ⅱ. 構造 分析

1. 造語面

1.1 造語類型

1.1.1.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은 그 構成 成分의 反復이 어떤 形態上의 變貌를 同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략 네가지로 大別하여 反復複合副詞의 造語類型을 考察할 수 있다.

1.1.2. 反復複合副詞은 전연 아무런 形態上의 變動이 없이 反復되는 경우와 構成 成分의 一部가 變動을 일으키며 反復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金桂坤(1978)은 形態素의 結合에서 ‘갑작갑작, 쉬엄쉬엄’ 따위와 같이 앞뒤 조각의 同一한 形態의 짜임새인 前者의 경우를 어울림짜임새라 하고, ‘옴니암니, 울긋불긋, 음으로양으로, 들쭉날쭉’ 따위와 같이 앞뒤 조각의 一部 形態는 同一하면서 一部 形態에 있어서는 소리가 다르거나 뜻이 다른 形態를 취한 짜임새인 後者의 경우를 되풀이짜임새라 하고 있다.⁸⁾

李熙昇(1977)은 同一한 語音이 重複되는 前者의 경우를 同音疊語, 同一한 語音이 重複되지 않고 類似한 音이나 語群이 重疊하는 後者의 경우를 類音疊語라 規定하고 거의 象徴的 意味에 限하여 使用된다고 한다.⁹⁾

劉昌惇(1978)은 前者의 경우에 대해 同語, 同音疊型으로 나누어 完全疊型이라 하고, 後者는 單型語들이 疊用副詞을 이루는 경우로 ‘울긋불긋’과 같이 對應되는 單型語들의 疊型語를 이루는 形態를 對應疊型語, 어느 한 部分만 同音, 音型, 疊型되는 경우로 ‘드르르, 드리슁슁’과 같은 形態를 가리켜 類似疊型語로 나누어 區分하였다.¹⁰⁾

8) 金桂坤(1978):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p.42.

9) 李熙昇(1977): 「國語學概說」, p.259.

10) 劉昌惇(1978): 「語彙史研究」, pp.435-436.

濟州 方言에서는 前者의 경우인 形態上 變動이 없이 反復되는 反復複合副詞가 量的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이 濟州 方言 語彙를 豊富하게 해주고 있다.

- (1) 굽작굽작, 과랑과랑, 늘쩍늘쩍
 바삭바삭, 물씩물씩, 어장어장
 편직편직, 호록호록, 오망오망
 수글수글, ㄱ웃ㄱ웃, 흘끗흘끗
 도랑도랑, 봉당봉당, 눅숙눅숙
 숨빡숨빡, 풀딱풀딱, 벨착벨착
 보실보실, 멘작멘작, 두작두작
 꼬릿꼬릿, 자울락자울락
 스르릉스르릉, 베베, 큰큰, 팔팔

後者の 경우는 XY形態들로서 그 대부분이 한쪽 構成 成分의 子音이나 母音 하나가 그리고 가끔 한 音節이 交替를 이루면서 反復되는 경우를 말한다. (2)가 그러한 形態의 例들이다.

- (2) 엄방덤방, 왈각달각, 알롱달롱
 오론도론, 어듬더듬, 어틀다틀
 와랑치랑, 우묵주묵, 울롱출롱
 오진조진, 어씩파씩, 왈탕발탕
 어숙비숙, 흔들만들, 을긋블긋
 어상바상, 심숭삼숭, 울멍실멍
 아리롱다리롱, 여부룩스부룩
 앵그랭앵그랭

그런데 이 (2)의 形態들을 單純히 類音(同音) 疊型이라 하는데는 問題가 있다. 이들이 反復되는 動機는 類音(同音)때문이었으나 意味의 側面에서 反復된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事實 몇 개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들의 反復은 類音보다는 차라리 意味의 關聯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블긋블긋, 아롱아롱, 거뭇거뭇
 푸룻푸룻, 알로룩알로룩, 알롱알롱

例 (3)은 色彩의 多樣性, 變異性을 表現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反復하는 表現法을 使用한 것이다. 이는 다음 (4)의 例처럼 反復·繼續되는 動作을 表現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한 것과 같은 現象이라 하겠다.

- (4) 슬쩍 — 슬쩍슬쩍(反復)
 비실 — 비실비실(〃)
 구물 — 구물구물(〃)
 출렁 — 출렁출렁(〃)

아래 (5)의 例들은 變化感을 더 如實히 表現하기 위해서 反復되는 音を 反復한 것이다.

- (5) 울긁불긁, 아롱다롱, 알락달락

이처럼 反復複合副詞에 있어서의 反復은 單純한 音의 反復만이 아니라 意味의 反復인 것으로, 이 意味의 反復이 反復을 形成하는 가장 根本的인 要素라 할 수 있다.

- (6) 츠나록 두 동이가 오골오골 가졌고나. (현 80, p.162)¹¹⁾
 (7) 죽었던 아기가 푹릿푹릿 살아난다. (현 80, p.175)
 (8) 흐뻐 못한 곰방대 쉬엄초를 피삭피삭 피와 물고. (현 80, p.476)
 (9) 열두궁기 털궁기마다 쓰르릉쓰르릉 녀들여 줌서. (현 80, p.517)
 (10) 물 소꿉에 들멍날멍 고운 절랑 좃어노왕. (김 65:837)
 (11) 너는야 나를 보든 본승만승 허건마는. (김 65:923)
 (12) 푸린 물속을 왓닥차다. (김 65:854)
 (13) 이영저영 걸러졌당 빙이나 와씩들민. (김 65:232)
 (14) 차멍오멍 잘 슬평 땡기라.
 (15) 느럭저럭 석월만 지남저.

11) 本稿에서 引用되는 資料集은 다음과 같은 略號를 쓰기로 한다.
 金榮敦(1965):「濟州島民謠研究」→(김 65)
 玄容駿(1980):「濟州島巫俗資料事典」→(현 80)
 이 외의 例文들은 일상 주민들의 發話에서 引用한 것들이다.

이들 例文 (6)~(15)에서 (10)~(15)의 ‘들멍날멍, 왓닥갓닥, 가멍오멍, 그럭저럭, 본숭만숭’들은 單純히 類音疊用(對應疊型語)이라 할 수는 없다. 이들은 單純한 反復複合副詞와 類似한 方法으로 疊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類音이라기 보다는 類似라고 함이 더 適切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類音疊用(對應疊型語)이라고 하는 대신에 類似反復複合副詞로 하고, 이에 대하여 例文 (6)~(9)의 무리들을 單純反復複合副詞로 나눌 수 있다.

1.1.3. 副詞를 形成하는 統辭的 機制로는 첫째 零變化 派生, 둘째 反復法 派生, 셋째 接尾法 派生の 세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¹²⁾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造語法은 주로 둘째의 경우인 語根이나 또는 語幹의 形態를 反復하여 副詞로 轉用되는 反復法 派生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接尾形態素가 必要없이 用言의 語根(語基)이나 語幹 自體의 反復으로 이루어진 形態와, 反復할 때 語根이나 語幹 形態만의 反復으로는 語彙的 安定性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反復을 위한 接尾形態素를 必要로 하는 形態의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를 위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考察하기로 한다.

- (16) 비쑤하다. — 비쑤비쑤
(홍합대합 비쑤비쑤. 김 65:836)
- (17) 너홀거리다. — 너홀너홀
(미역귀가 너홀너홀. 김 65:836)
- (18) 들삭거리다. — 들삭들삭
(궁둥이가 들삭들삭. 김 65:901)
- (19) 등갈하다. — 등갈등갈
(등갈등갈 걸려나 지라. 김 65:949)
- (20) 차웃거리다. — 차웃차웃
(자웃자웃 지드리어라. 김 65:1004)
- (21) 비룽하다. — 비룽비룽
(담고냥은 비룽비룽. 김 65:1190)
- (22) 그랑하다. — 그랑그랑

12)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pp. 404-406.

- (이 내용은 그랑그랑. 김 65:1190)
- (23) 더^ㄴ울^ㄴ거리다. - 더^ㄴ울^ㄴ더^ㄴ울^ㄴ
 (총각머리 더^ㄴ울^ㄴ더^ㄴ울^ㄴ. 김 65:1190)
- (24) 시^ㄴ들^ㄴ다. - 시^ㄴ들^ㄴ시^ㄴ들^ㄴ
- (25) 흥^ㄴ글^ㄴ다. - 흥^ㄴ글^ㄴ흥^ㄴ글^ㄴ

위 예 (16)~(25)까지의 形態들은 用言의 語根(語幹)이 反復하여 이루어진 反復複合副詞들이다.

위 (16)~(25)의 形態들에 비해 다음 (26)~(29)의 예들은 語根(語幹)의 形態들이 反復할 때 語根(語幹) 形態만의 反復으로는 語彙的 安定性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反復을 위한 接尾形態素를 必要로 하고 있다.¹³⁾

(26) /-ㄴ/

- 무^ㄴ끼다 - 무^ㄴ끼^ㄴ무^ㄴ끼^ㄴ
- 버^ㄴ디다 - 버^ㄴ디^ㄴ버^ㄴ디^ㄴ
- 어^ㄴ질다 - 어^ㄴ질^ㄴ어^ㄴ질^ㄴ
- 쫄^ㄴ르다 - 쫄^ㄴ르^ㄴ쫄^ㄴ르^ㄴ
- 너^ㄴ넵다 - 너^ㄴ넵^ㄴ너^ㄴ넵^ㄴ
- 줌^ㄴ질다 - 줌^ㄴ질^ㄴ줌^ㄴ질^ㄴ
- 드^ㄴ물다 - 드^ㄴ물^ㄴ드^ㄴ물^ㄴ

(27) /-악/-억/

- 두^ㄴ지다 - 두^ㄴ작^ㄴ두^ㄴ작^ㄴ
- 쏘^ㄴ다 - 쏘^ㄴ악^ㄴ쏘^ㄴ악^ㄴ
- 이^ㄴ스다 - 이^ㄴ석^ㄴ이^ㄴ석^ㄴ
- 멜^ㄴ쓰다 - 멜^ㄴ씩^ㄴ멜^ㄴ씩^ㄴ
- 멜^ㄴ르다 - 멜^ㄴ락^ㄴ멜^ㄴ락^ㄴ
- 물^ㄴ르다 - 물^ㄴ락^ㄴ물^ㄴ락^ㄴ

13) 沈在箕(1982) : op. cit., p.417.

(28) /-ㅅ/ 14)

- 푸리다 - 푸릿푸릿
- 질기다 - 질깃질깃
- 등글다 - 등긋등긋

(29) /-웃/

- 겁다 - 거뭇거뭇
- 불다 - 불긋불긋

이외에도 ‘수굴수굴(숙다)’의 /-울/, ‘할록할록(할트다)’의 /-옥/, ‘늘찍늘찍(느리다)’의 /-찍/ 등이 보인다.

이러한 用言의 語根(語幹)에 接尾된 接尾形態素들을 抽出해 보면

/-ㄴ, -악/-억, -ㅅ, -웃, -울, -옥, -찍/

들밖에 發見되고 있지 않으나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상당수가 ‘用言語根(語幹)+接尾形態素’의 反復으로 形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用言語根(語幹)+接尾形態素’의 形態를 國語에서 ‘疊用副詞語’ 1136語彙를 대상으로 그 形態部를 考察하고 頻度數가 20以上으로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¹⁵⁾

-작/-적, -찍/-적, -착/-척 : 77 개

-악/-억, -딱/-떡, -탁/-턱 : 55 개

-랑/-렁 : 53 개

-락/-럭 : 42 개

-글/(-꺄, -꺄) : 37 개

-근/(-근, -근) : 36 개

-동/-동, -똥/-똥, -통/-통 : 27 개

-득/(-득, -득) : 25 개

14) 沈在箕(1982 : 418)에서 ‘기웃기웃’의 接尾形態素는 /-ㅅ/이라 하고 ‘기웃둥기웃둥’의 接尾形態素는 /-둥/이라 하였는데 이는 ‘기웃기웃에 비추어 마땅히 /-ㅅ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5) 趙奎高(1958): “疊用副詞의 考察”, 「語文學」 3, p. 80.

-긋/(-긋), -삭/(-삭), -씩/(-씩) : 24 개
 -실/(-실) : 23 개
 -죽/(-죽), -쪽/(-쪽), -축/(-축) : 22 개
 -각/(-각), -깍/(-깍), -각/(-각) : 21 개
 -금(-금, -금) : 20 개

S. E. Martin도 二音節로 된 感覺副詞의 末音節은 派生接辭라 하면서 多數가 ‘用言語幹+派生接辭’로 構成된다하고 있다.¹⁶⁾

Many of the two-syllable impressionistic adverbs have an etymologically recognizable morpheme (such as a verb or adjective base) as the first syllable, and the second syllable is to be regarded as a derivative suffix.

以上과 같이 濟州 方言에서의 反復複合副詞은 대부분이 共時的으로는 一般語幹의 包含을 發見할 수 없을지라도 많은 수가 ‘用言語根(語幹)+接尾形態素’의 反復으로 造語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用言의 語根(語幹)들이 形態素로서의 資格을 가지면서 反復되었기에 單純한 疊語라기보다는 語根(語幹)들의 反復인 反復複合副詞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1.1.4. 語基의 副詞에 따른 分類에는 여러 學者마다 약간의 差異를 보인다. 그 品詞 分類의 內容들을 簡略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姜成一(1982)은 中世語의 合成副詞를 分類하여 ‘副詞+副詞’, ‘體言+體言’, ‘體言+體言 + 이’의 꼴로 나누고 있다.¹⁷⁾

李熙昇(1977)은 ‘同音疊語’를 品詞別로 나누어 ‘疊用名詞, 疊用動詞, 疊用形容詞, 疊用副詞’로 分類하고 있다.¹⁸⁾

許 雄(1982)은 副詞의 統辭的 合成語의 種類를 ‘어찌씨 들이 合成된 것, 이름씨

16) S. E. Martin: "Phonetic Symbolism in Korean", 「論文作성과 研究實態」李崇寧(1976), p. 248. 李英姬(1982): 「濟州島 方言의 象徵語研究」(碩論, 濟州大學校) p. 27. 再引用.

17) 姜成一(1982): 「國語學論考」, p. 116.

18) 李熙昇(1977): *op. cit.*, p. 259.

가 되풀이 한 것, 象徴的 뿌리가 겹친 것, 매김씨+어찌씨'의 꼴로 나누고 있다.¹⁹⁾ 이처럼 종래의 複合語, 反復複合語의 分類가 品詞 위주임을 알 수 있다. 濟州方言의 單純反復複合副詞를 대상으로 品詞別 分類를 해보면 대다수가 '副詞+副詞'의 꼴로 나타난다. 이 副詞의 反復形은 다시 副詞가 된다.

- (30) a. 이 죽창을 솔 썩 썩 엇 놀당보진 (김 65:837)
 b. 노픈 되랑 두드려 가명 솔 썩 솔 썩 들어사명 (김 65:1062)
- (31) a. 노픈 되랑 되덩가고 흔 저 빨리나가게. (김 65:1100)
 b. 시벳인 양태 흔 저 흔 저 돌아나가라. (김 65:1096)
- (32) a. 흔 저 빨리 ㄹ되 가게. (김 65:830)
 b. 빨리 빨리 비여보라. (김 65:1124)
- (33) a. 살당보민 베 롱 홀 날도 이실테주
 b. 밤이난 벨이 베 롱 베 롱 보염신제
- (34) a. 떡 ㄹ시레기나 ㄹ 득 쭙서
 b. 유과 실과 어물상을 ㄹ 득 ㄹ 득 올려봐도. (김 65:266)
- (35) a. 무사 홀 긔 브 램시나
 b. 씨어멍이나 맥염시민 홀 긔 홀 긔 브래는 눈이랑. (김 65:121)

(30)~(35)의 例文들에서 a, b의 關係를 다시 整理하여 圖表로 보이면

<表1-1>

品詞(副詞)	反復複合形態
솔	솔썩솔썩
흔	흔저흔저
빨	빨리빨리
베	베롱베롱
ㄹ	ㄹ득ㄹ득
홀	홀긔홀긔

들과 같다. 이들은 同音이 아닌 곧 單型語들이 反復하여 複合副詞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에 分離한다 하더라도 品詞로서 獨立이 可能하며, 또한 單語(副詞)들이

19) 許 雄(1982): 「國語音韻學」, p. 116.

反復하여 反復複合副詞의 形態를 形成하고 있다.

1.1.5. 語基 音節數에 따른 分類는 다음과 같은 形態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36) 곁곁(곁다), 큰큰(크다), 베베(베다), 팔팔(팔다)
욕욕(욕다), 진진(질다), 먼먼(멀다), 쓴쓴(쓰다)
뜨뜨(뜨다), 곤곤(곶다), 촌촌(춸다), 한한(하다)

(36)은 用言 語根(語幹)의 反復으로 이루어진 反復複合副詞들이다. 그러나 다음
의 (37)의 形態들은 反復複合副詞로서의 資格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 (37) 땡땡+하다(몸이 땡땡하다)
션션+하다(바람이 불어서 매우 서늘하다)
푼푼+하다(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초초+하다(단성하고 깨끗하다)
삼삼+하다(음식이 조금 싱겁고 맛이 있다)
흔흔+하다(무엇에 물건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
털털+하다(사람의 성격이 소탈하다)

이들 (37)의 形態 ‘땡땡, 션션, 푼푼, 초초, 삼삼, 콘콘, 털털’ 등은 外型上
反復複合副詞의 形態들로 보이지만 反復되는 要素인 ‘땡-, 션-, 푼-, 초-, 삼-,
콘-, 털-’ 등은 따로 形態素로서 分立될 可能性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또한
‘-하다’와 結合되지 않고서는 單語로서의 口實을 하지 못한다는 點에서 反復複
合副詞로서의 資格을 얻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38) 엄방덤방, 어듬더듬, 알롱알롱
어숙비숙, 울긋불긋, 왈강달강
얼룩달룩, 왈탕발탕, 흔들만들
간들간들, 설랑설랑, 흑직흑직
과랑과랑, 굵작굵작, 소왓소왓
검실검실, 그랑그랑, 부작부작
소롬소롬, 풀락풀락, 푸삭푸삭
우락우락, 오론도론

- 39) 자울락자울락, 지글락지글락
 하우작하우작, 가드락가드락
 마슬락마슬락, 오그랑오그랑
 흘그랑흘그랑, 아리롱다리롱
 여부룩스부룩, 멩그랑멩그랑

여기서 例 (38), (39)의 形態들은 각각 語基 二音節, 語基 三音節의 反復複合 副詞들이다. 濟州 方言에서는 이들 중 가장 많은 語彙가 역시 語基 二音節이며, 語基 四音節語의 경우 現代 國語에서는 ‘철레벌떡철레벌떡’, ‘시근발딱시근발 딱’, ‘요리뒤적조리뒤적’, ‘이리뒤척저리뒤척’, ‘요령든지저령든지’ 등 少數가 보이지만, 濟州 方言에서는 ‘와르릉탕와르릉탕’ 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外에 以上과 같은 分類 類型으로 處理가 困難한 特異한 反復形態들을 簡略하게 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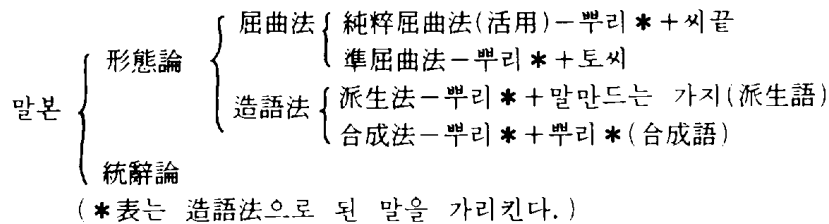
- (40) 비비작작, 가로삭삭, 비비등등
 절쿵절각, 굴망굴짓, 놀망놀짓
 간디족족, 문지르르, 죽을락살락
 왁왁침침, 꿀꿀히, 풍풍광광
 마단마단이, 과르르, 끗끗내
 들이드락내드락, 먹언둥말안둥

들을 例로 들 수 있다.

1.2. 統辭的 意味 機能

1.2.1. 종래에는 反復複合副詞를 흔히 疊語라 불러 複合語와 對立시켜 認識하였다. 그러나 複合語가 두개 以上の 語根이나 語幹을 가진 言語 形式임을 생각할 때 反復複合副詞는 당연히 造語法²⁰⁾에서 다루어 질 수 있으며, 또한 複合語의

20) 許 雄(1975:33)에서



一種이요, 그 下位類라는 事實이 바로 認識될 必要가 있다.

그런데 두 自立形式의 結合으로 된 複合語는 統辭論的 構成과 區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國語文法의 整理되지 않은 部問의 하나이며, 맞춤법, 띄어쓰기의 苦悶²¹⁾ 중에 한가지로 되어 있다. 反復複合副詞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뚜렷이 浮刻되며, 다른 複合語와는 다른 特徵을 갖고 있다. 이러한 特徵을 統辭論的 構成과 形態論的 構成을 區別하는 몇 가지 알려진 方法²¹⁾을 통해 살피려 한다.

1.2.2. 複合語의 두 成分은 緊密히 結合되어 있어서 文法的으로 하나의 낱말처럼 作用한다. 따라서 두 構成 成分 사이에는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 없다.

- (1) 누물뿔휘(나물뿌리) → 누물 시든 뿌리
- (2) 집사람 → 집 멧진 사람
- (3) 뽕나무 → 뽕 작은 나무

그러나 대부분의 反復複合副詞는 두 成分 사이에 다른 말을 끼워 넣어도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意味上에 있어서도 統辭論的 構成과 거의 아무런 差異도 보이지 않는다.

- (4) a. 이슴이슴 → b. 이슴 좀 더 이슴
- (5) a. 먼저먼저 → b. 먼저 좀 더 먼저
- (6) a. 멀리멀리 → b. 멀리 좀 더 멀리

위 (4)~(6)들에서 ‘이슴이슴, 먼저먼저, 멀리멀리’ 등은 한 形式으로 取扱되기 때문에 統辭論的 構成이라고 斷定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4)~(6)에 提示해준 語形들은 ‘이슴이슴 좀 더 이슴이슴’, ‘먼저먼저 좀 더 먼저먼저’, ‘멀리멀리 좀 더 멀리멀리’와 같은 表現이 可能하다. 이러한 統辭論的 構成과 形態論的 構成은 意味보다는 強勢에 있어서 差異를 보여 준다. 統辭論的 構成의 單語 反復은 反復된 單語에 같은 強勢가 주어지거나 뒷 쪽에 오히려 強勢가 주어진다. 이는 統辭論的 構成과 形態論的 構成의 反復을 區別하는 基準이 된다. 사실 反復되어지는 뒷 部

21) 許 雄(1975):「우리옛말본」, pp. 41-42.

分은 強勢의 意味 形成과 깊은 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6)의 'b'語形 '이슴 좀 더 이슴', '먼저 좀 더 먼저', '멀리 좀 더 멀리'들은 統辭論的 構成에 強勢意味의 修飾語가 插入되어진 形態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3. 合成語의 각 自立成分의 뜻은 그것이 獨立된 言葉로서 單獨으로 쓰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꽤 심하게 바뀌는 일이 많다.

- (7) 몸질 ≍ 몸의 질
- (8) 눈물 ≍ 눈의 물
- (9) 쓸항 ≍ 쓸의 항
- (10) 손콧 ≍ 손의 콧
- (11) 물떡 ≍ 물의 떡
- (12) 길가 ≍ 길의 가

그러나 대부분의 反復複合副詞는 각 自立形式의 뜻이 獨立된 言葉로서 單獨으로 쓰이더라도 거의 變하지 않는다. 이는 反復複合副詞가 다른 複合語와는 달리 그 反復으로 인해 連續·多數·強調·反復·리듬 등의 效果²²⁾를 나타내므로 反復되기 前과 反復된 後와 그 語意上에 있어 뚜렷한 差異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3) a. 이 방에 버치믄 놈이 웃나 훈저훈저 쿵쿵 찍어. (김 65:738)

b. 이 방에 버치믄 놈이 웃나 훈저 쿵쿵 찍어

(14) a. 설랑설랑 부는 바람. (김 65:902)

b. 설랑 부는 바람

(15) a. ㄹ과 실과 어물상을 긱긱 올려봐도. (김 65:229)

b. ㄹ과 실과 어물상을 긱 올려봐도

(16) a. 그것말은 주맹기에 담양 차꾸차꾸 굶엄서라

22) 趙奎高(1958) : op. cit., p. 84.

b. 그짓말은 주멍기에 담양 차꾸 굶엄서라

(17) a. 손콍으로 뽑아가멍 발콍으로 밀어내엄 훈저훈저 펼작펼작 들이메라.

(김 65:1036)

b. 손콍으로 뽑아가멍 발콍으로 밀어내엄 훈저 펼작 들이메라

이들 (13)~(17)에서 ‘a’, ‘b’ 각각의 形態들을 다시 整理하면 다음 圖表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表1-2〉

(a 形態)	(b 形態)
훈저훈저	≍ 훈저
설랑설랑	≍ 설랑
ㄴ득ㄴ득	≍ ㄴ득
자꾸자꾸	≍ 자꾸
펼작펼작	≍ 펼작

(13)~(17)에서 反復된 ‘a’와 反復되지 않은 ‘b’와 意味上에서 별 差異를 느끼지 못한다. 이는 〈表1-2〉와 같이 말을 反復함으로 인해 反復되기 前과 反復된 後와 말의 뜻을 分化하고 있다기보다는 다만 語感上의 意味를 한층 深化시켜 주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1.2.4. 反復複合副詞 가운데는 自立 形式이 獨立되면 따로이 形態素로서의 機能을 갖지 못하는 形態素들이 있다.

(18) 엄방덤방, 어듬더듬, 알롱달롱
 어숙비숙, 을긋불긋, 왈강달강
 오글랑다글랑, 얼룩덜룩
 흔들만들, 흥글망글

위 (18)의 形態들은 어느 한 쪽만으로도 正常的인 形態素로서의 資格을 갖고서 ‘덤방덤방’, ‘더듬더듬’, ‘알롱알롱’, ‘비숙비숙’, ‘불긋불긋’, ‘왈강왈강’, ‘오글랑오글랑’, ‘얼룩얼룩’, ‘흔들흔들’, ‘흥글흥글’ 등과 같이 XX形態의 單純反

이들 (19)~(22)의 形態素들에 비해 다음 (23)~(25)의 反復複合副詞의 形態들은 대부분 그 文法的 機能을 달리 하지 않는다.

- (23) 프릿프릿 → 프릿(用言)
- (24) 두작두작 → 두작(用言)
- (25) 두고두고 → 두고(用言)

以上の 考察을 通해 反復複合副詞에는 오히려 統辭論的 構成의 特徵이 뚜렷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反復複合副詞가 形態論的 構成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두 自立形式의 結合의 緊密性 때문이다. 이러한 緊密性 때문에 다음 (26)~(31)의 反復複合副詞들은 하나의 單位로 取扱될 수 있다.

- (26) 비슷하다. — 비슷비슷하다
- (27) 빌착하다. — 빌착빌착하다.
- (28) 헛시략거리다. — 헛시략헛시략거리다.
- (29) 후근하다. — 후근후근하다.
- (30) 후근하다. — 후근후근하다.
- (31) 으르렁거리다. — 으르렁으르렁거리다.

2. 形態面

2.1. 象徴音韻 分析

2.1.1. 言語記號란 그 言語를 使用하는 言衆에게 있어서는 概念과 音이 不可分離의 關係로 連結되어 있다. 즉 言語記號의 一部는 그 音이 事物과 直接的으로 結合되어 있어서 그 音이 그 事物을 表現하는 데 다른 音으로써 하는 것보다는 더 適切한 것으로 느껴지는 일이 있음을 認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리와 그 뜻의 關係가 必然的인 것으로 그 言語를 使用하는 사람들의 共時 意識으로는 그 言語에서 成立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關聯이 매우 緊密하여 任意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關點에서 모든 言語 表現

을 音聲象徵(sound symbolism)이라 하기도 한다.²⁴⁾

言語 表現에 있어서 가장 實物에 가까운 것은 動物이나 自然界의 音響을 그대로 나타내려 한 것이 擬聲語이고, 또한 擬聲語처럼 直接的인 것은 아니지만 動物의 몸짓 自然物의 움직임을 切實히 表現하려고 하는 擬態語가 다음으로 實物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러한 象徵語의 대부분이 反復複合副詞로 되어 있으며, 反復複合副詞의 대부분이 象徵語임을 생각할 때 音聲象徵에 대한 考察은 反復複合副詞의 考察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反復複合副詞 가운데 象徵語를 대상으로 하여 音聲象徵 部分의 特性을 살피려 한다. 이에는 먼저 反復複合副詞에서 音聲象徵 部分을 分析해 내는 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2.1.2. 反復複合副詞는 意味部와 形態部로 分析되며 形態部가 音聲象徵을 擔當한다는 점이다.

趙奎高(1958)은 象徵語의 中心的 位置에 있는 疊用副詞(1136語彙)는 形態論的 考察을 통해 意味部와 形態部로 分析할 수 있으며, 形態部는 말에 따라 末音節을 完全히 取한 것, 또 母音과 末音만을 取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音聲象徵의 主要機能은 形態部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末音이 맡고 있고 實在 統計에서는 形態部로서 末音節을 完全히 取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²⁵⁾ 먼저 反復複合副詞를 ‘一般語彙의 語幹+疊用副詞 形態部型’과 ‘一般語幹 自體의 疊型’으로 나누고 形態部 音韻 統計를 통해 形態部の 集中的 事實과 散在的 事實을 밝힘으로써 이를 糾明할 수가 있겠다.

沈在箕(1982)는 動詞 語幹이 反復할 때 語彙의 安定性을 얻기 위해 語幹을 다시 狀態性으로 바꾸는 接尾形態素를 必要로 한다고 하고 語幹의 反復法에 의해 副詞化하는데 動員되는 接尾形態素로서 20餘種을 들고 있다.²⁶⁾ 여기에는 語基 音節末 子音과 末音節이 보일 뿐 母音과 末音을 取한 形態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形態部나 接尾形態素를 어디까지 抽象化시킬 것인가의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混亂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形態部를 象徵語로서의 範疇를 맡은 部

24) 許 雄(1982) : op. cit., p. 527.

25) 趙奎高(1958) : op. cit., pp. 71-95.

26) 沈在箕(1982) : op. cit., p. 418.

分이라는 見地에서 分析할 경우에는 다음 (1)~(3)과 같은 말들의 處理가 問題된다.

- (1) 와드득와드득, 으드득으드득
바드득바드득, 보드득보드득
- (2) 드르륵드르륵, 자르륵자르륵
치르륵치르륵
- (3) 흘그랑흘그랑, 흘그랑흘그랑
할그랑할그랑

(1)~(3)의 경우 ‘-드득, -르륵, -그랑’ 따위는 象徵語로서 範疇을 形成하고 있는 部分이라 할 수 있는데, 이 象徵의 範疇을 除外한 部分인 /와-, 으-, 바-, 보-, 드-, 자-, 치-, 흘-, 흘-, 할-/들이 意味部는 되지 못하고 있다.

以上에서 종래의 反復複合副詞 分析에 있어 問題點들이 없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象徵語에 音聲을 象徵하는 部分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象徵 部分들이 서로 무리를 形成하고 있어서 範疇을 이루고 있음도 事實이다.

2.2. 末音形態部 分析

2.2.1.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들은 語基 二音節語가 대부분을 이루며 이 二音節語 가운데서도 거의 末音節이 象徵의 範疇을 形成하고 特히 末音이 音聲象徵의 核心 役割을 한다. 그러므로 語基 二音節語의 末音形態部를 分析²⁷⁾하고, 統計를 通하여 그 特徵을 考察하고자 한다. 그리고 反復複合副詞 가운데서도 語基 二音節語가 濟州 方言 象徵語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語基 二音節語 중 反復複合副詞 545語彙를 대상으로 하여 末音形態部를 分析하였다. 語基 一音節語는 語基 末音을 除外하고는 뚜렷이 어디까지가 象徵 部分이 될 수 있을 것인지 基準設定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統計 資料에 包含시키지 않았다. 또한 한 語彙의 센말, 거센말, 큰말 따위는 각각 一語로 處理하였음을 밝혀둔다.

2.2.2.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 末音形態部の 統計를 다음 圖表로 보이면서 分析하여 나가기로 한다.

27) 本稿에서는 주로 音韻上の 形態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分析 資料로는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朴用厚(1960): 「濟州方言研究」,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등이다.

〈表2-1〉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 末音形態部の 分析

末音 頭音	- k					- ŋ					- l				
	小計	a	e	o	u	小計	a	o	u	其他	小計	a	o	u	其他
計	250	171	13	20	12	142	102	15	15	2	63	2	1	41	13
k	20	16	2	2	0	16	15	0	1	0	22	0	1	21	
p	13	7	0	3		1	1	0	0		2	0	0	1	
t	36	19	1	1	1	11	8	0	2	1	15	1	0	14	
č	65	42	6	1	12	8	3	0	2		7	0	0		6
s	33	24	2	6	1	10	5	0	3	1	14	1	0	5	7
l	64	48	1	5	5	86	64	14	8		0	0	0		
m	15	12	1	1	1	10	6	1	0	1	3	0	0	3	
n	2	1	0	1	0	0	0	0	0		0	0	0	0	
h	2	2	0	0	0	0	0	0	0		0	0	0	0	0

末音 母音 頭音	- n					- s					- m					(ㄱ ㅌ)					
	小計	a	o	u	其他	小計	a	o	u	其他	小計	a	o	u	其他	小計	a	o	u	其他	
計	29	5	1	17	3	25	1	1	13	6	1	1	2	9	1	22	2	1	1	9	5
k	15	0	0	15		12	0	1	9	2		0	2	6		3	0	1	2		
p	1	1	0	0		3	0	0	1			0	0			2	0	0	0	1	1
t	1	1	0	0		0	0	0				1	0	1		2	0	0	0	1	1
č	3	0	0	0	3	0	0	0				0	0	1		3	0	0	1	1	1
s	3	1	0	1		0	0	0				0	0	1		2	1	0	0		
l	2	1	1	0		6	1	1	4			0	0			7	0	0	1	5	1
m	3	1	0	2		4	0	0	3	1		0	0			1	0	0	0		1
n	1	0	0	1		0	0	0				0	0			2	1	0	0	1	
h	0	0	0	0		0	0	0				0	0			0	0	0	0		

〈表2-1〉은 反復複合副詞에서 末音形態部の 語基 末音節이 고르게 排列되어 있지 않고 몇 곳에 集中的인 頻度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音聲象徴 部分 中에서 어떤 部分이 濟州島 言衆들의 發話에 잘 迎合되어 使用되고 있는가를 나타낼 뿐 아니라, 音聲象徴 部分의 範疇를 形成하고 있음도 아울러 잘 보여준다. 參考로 頻度數가 10以上の 語基 末音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작/-적 : 32 개
- 락/-력 : 49 개
- 닥/-덕 : 14 개
- 득 : 11 개
- 막/-먹 : 13 개
- 삭/-석 : 26 개
- 랑/-령 : 66 개
- 강/-경 : 20 개
- 릉/-룡 : 18 개
- 글 : 20 개
- 들 : 11 개
- 긋 : 10 개

이들 12개 音의 頻度を 合한 것이 總合計 290語로써 전체 統計 語彙의 略 절반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 語基 末音節의 集中的인 分布 現象이 現代 國語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語基 末音을 대상으로 比較해 보면 보다 鮮明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그러면 語基 末音別로 分類²⁸⁾한 것을 다음 圖表와 같이 提示하여 보기로 한다.

28) 國語의 統計資料는 ‘東亞出版社’ 編纂 「新國語辭典」(1980)에서 語基 二音節語 1265語, 語基 一音節語 276語를 대상으로 調査 分析하였으며, 濟州 方言은 語基 二音節語 545語, 語基 一音節語 137語를 대상으로 하였다. 빗금 상단은 國語의 語彙數, 하단은 濟州 方言 語彙數임. 語基 一音節語를 分析 資料로 놓은 것은 보다 統計의 正確을 기하기 위함이다.

〈表2-2〉 語基 末音節 頻度數

末音 音節數	-k	-l	-ŋ	-n	-t	-m	-p	其 他
2 音節語	453 250	255 63	202 142	93 29	98 0	89 14	1 0	74 47
1 音節語	72 37	70 17	66 35	9 14	1 0	8 5	3 5	45 24
計	525 287	325 80	268 177	102 43	99 0	97 19	4 5	119 71

以上の 〈表2-2〉에서 나타나는 語基 末音別 頻度 現象은 /-k, -l, -ŋ/의 三音節에 集中的인 分布를 띠고 있다는 點인데, 國語에서는 /-k/ > /-l/ > /-ŋ/의 順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濟州 方言에서는 /-k/ > /-ŋ/ > /-l/의 順으로 /-ŋ/이 /-l/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濟州 方言의 색 다른 點은 하나 둘이 아니겠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ŋ/音節을 가진 말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⁹⁾

- (2) 개똥이 아방이 할망네 집의 강 방 밥 먹꼭 누영 자당, 뉘랑 놀꼭 흥영 오랭 흥영게.
- (3) 왕 방 상 갑서.
- (4) 느영 나영 가당 오당 만나신게.

例(2)~(4)에서 보는 바처럼 이 /-ŋ/의 使用 實態는 名詞, 形容詞, 副詞, 語尾活用 및 助詞 등에서도 多量하게 쓰인다. 그리고 /-k, -ŋ/ 둘만으로도 統計 資料 전체 語彙의 7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表2-2〉에서 語基 末音節 分布現象을 살펴보면 國語에서는 末音으로 /-t/音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濟州方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음도 指摘할 수 있는 特把한 點이다.

2.2.3.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語基 末音에 集中的인 分布를 띠고있는 /-k, -ŋ, -l/ 三音이 과연 全音韻의 代表格이 될 수 있으며, 全音과 動作의 基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點이다.

이 /-k, -ŋ, -l/ 三音은 音韻의 特徵上 각각 獨特하여 /-k/는 無聲破

29) 玄容駿(1956): "濟州 方言에서의 「ŋ」考", 「國文學報」, 第一輯(國語國文學會), pp. 22-23.

裂音이고, /-ŋ/은 有聲通鼻音, /-l/은 流音이어서 全音韻의 代表格이 될 수 있는 音들이다. 또 象徴의 實在에 있어서도 直接 模倣인 擬聲語에 쓰인 音은 이 三音뿐이고 他末音은 없으며, 이 三音의 特徵은 그 音韻의 特徵과 對應되어 소리나 狀態의 一時的 現象, 彈力性이 없고 餘韻 없는 소리, 停止·衝突 등의 表現에는 /-k/를, 反對로 彈力性이 있고 餘韻있는 소리나 動作, 一時的 現象이라도 強力性이 남은 表現에 /-ŋ/, 變轉·回轉·繼續·進行등의 音과 動作에 /-l/로 表出하여 이 三音이 全音과 動作의 基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他末音은 이 /-k, -ŋ, -l/ 基本音에다 약간의 뒤앙스를 더한 것이어서 /-k/類에 /-t, -p/, /-ŋ/類에 /-n, -m/ 등이 사용된다고 본다. 이런 점으로 보아 形態部가 象徴의 基本을 나타내어 末音이 象徴의 中心이 되고 나머지 初頭音과 母音이 어울려서 微妙한 表現을 하고 있다.³⁰⁾

‘訓民正音解例’의 ‘制字解’에서는 初聲에 대하여 그 소리를 調音하는 調音體의 性質, 狀態를 보고 소리의 바탕(質)을 印象적으로 說明하고 있다. 이에 대한 部分을 引用하면

“대개 사람의 소리도 오행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사철에 어울리어 어그러지지 않으며, 오음(五行)에 맞아서 어기지 않는다.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므로 「물」(水)이다. 소리가 비고 통함은 마치 물의 맑고 흐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철로는 「겨울」이고, 오음으로는 우(羽)가 된다.

어금니는 어긋나고 길므로 「나무」(木)다. 소리가 목구멍소리와 비슷하지만, 여문 것은 나무가 「물」에서 나오나 꽃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철에 있어서는 「봄」이고, 오음에 있어서는 각(角)이 된다.

혀는 날카롭고 움직이므로 「불」(火)이다. 소리가 구르고 날렘은 마치 불의 이글거리며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철로는 「여름」이고, 오음으로는 치(徵)가 된다.

이는 단단하고 부러지므로 「쇠」(金)다.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리므로 마치 쇠의 부스러기가 부서지지만 단련되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철로는 「가을」이고, 오음으로는 상(商)이 된다.

입술은 모가 나고 붙으므로 「흙」(土)이다. 소리가 머금고 넓으므로 흙의 만물을 머금어 넓고 큼과 같은 것으로 철로는 늦여름이고, 오음으로는 궁(宮)이 된다.”

30) 趙奎高(1958): op. cit., p. 94.

라 하고 있다.³¹⁾ 이처럼 牙·舌·唇·齒·喉音이 각기 獨特한 音感과 質을 가지고 있음을 易에다 象徵하여 說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易으로 생각하자면 自然界 모든 音의 音感은 이로써 代表된다고 볼 수 있겠다.

現代國語의 末音은 /-k, -n, -t, -l, -m, -p, -ŋ/의 일곱가지로 나타난다. 이 일곱 音은 發動部에서 나온 공기가 聲滯와 입을 通過하는 類型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類型은 소리의 質을 區別짓게 하는 口實을 한다.³²⁾

이들은 우선 /-p, -t, -k/의 無聲破裂音과 /-n, -m, -ŋ, -l/의 共鳴鼻音과 /-l/의 共鳴側音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소리의 質이란 面에서 볼 때 無聲破裂音의 /-k/, 共鳴鼻音(流音)의 /-ŋ/, 共鳴側音의 /-l/의 三音이 濟州 方言의 全音韻을 代表하지는 못하나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末音을 代表하고 있다는 事實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2.2.4. 다음으로 <表2-3>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事實은 反復複合副詞의 末音節의 母音은 陽性母音이 陰性母音보다 배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現象은 現代 國語와는 전혀 다른 점으로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에서 볼 수 있는 特異한 現象이다.

아래 圖表는 母音의 크기를 崔鉉培의 表³³⁾에 비추어 現代 國語의 母音 頻度數와 濟州 方言의 그것과를 서로 比較하여 整理한 것이다.

31) 朴炳采(1971): 「譯解 訓民正音」, pp. 63-64.

金錫得(1975: 60)에서는 이들 內容을 整理하여 다음 圖表와 같이 나타내보이고 있다.

	調音音聲學			易學	
	調音體의 性質狀態		音質(音感)	五行	四行
喉	遼	潤	虛通	水	冬
牙	錯	長	實	木	春
舌	銳	動	轉颯	火	夏
齒	剛	斷	屑滯	金	秋
唇	方	合	含·廣大	土	季夏

32) H. A. Gleason(1955):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 Revise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21-22.

33) 崔鉉培(1978): 「우리말본」, p. 730.

〈表2-3〉 母音 頻度 比較

區 分	큰 말			작 은 말		
	1	2	3	4	5	6
차 례	1	2	3	4	5	6
홀소리	u	ə	i	a	o	i
語彙數	228 47	284 25	289 101	206 284	65 34	113 46
計	現代國語 801, 濟州 方言 173			現代 國語 384, 濟州 方言 364		

* ‘에, 애, 외’는 語彙數가 극히 적기 때문에 統計資料에서 除外하였다.

〈表2-3〉에서 現代國語는 큰말 系列의 母音이 작은말 系列의 母音보다 2배 以上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濟州 方言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現象인 작은말 系列의 母音이 큰말 系列의 母音보다 2배 以上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特異하다. 이로써 濟州 方言 言衆들은 陰性母音보다는 陽性母音 選好度를 가지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으며, 古語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陽性母音이 많이 나타나는 데 이 점에서 一致하고 있는 現象이라 하겠다. 또한 母音의 頻度를 보면 現代國語에서는 대체로 골고루 分散되어 있지만 濟州 方言에서는 큰 말에서 /i/에, 작은 말에서는 /a/에 集中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音韻面

3.1. 母音의 對應

3.1.1. 우리말은 母音의 對應³⁴⁾으로 인해 語義에는 別반 變動이 없이 微妙한 語感의 差異를 巧妙하게 表現하는 方法이 發達되어 있다.

S. L. Garrigues는 韓國語에 있어서 象徵母音體系의 對應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⁵⁾

34) 金亨奎(1978:28)에서 國語의 母音 對應 가운데 가장 典型的인 것으로 ‘ㅏ~ㅑ’, ‘ㅓ~ㅕ’, ‘ㅗ~ㅛ’, ‘ㅜ~ㅠ’, ‘ㅛ~ㅠ’, ‘ㅜ~ㅠ’, ‘ㅛ~ㅠ’, ‘ㅛ~ㅠ’, ‘ㅛ~ㅠ’ 등을 들고 있다.

35) S. L. Garrigues(1984): The Structure and Phonology of Mimetic Words in Korean and Japanese,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19集(人文篇), p. 48.

The majority of Korean mimetic words can be found in sets of “bright” and “dark” variants according to this system of symbolic vowel alternation. The full range of alternate pairs utilized in modern Korean mimetic constructions is as follows: a-ǒ(아-어), a-ŭ(아-으), a-i(아-이), ae-e(애-에), ae-ŭi(애-의), ae-i(애-이), ya-yǒ(야-여), ya-i(야-이), wa-wǒ(와-워), wae(왜-웨), o-u(오-우), oe-wi(외-위), yo-yu(요-유).

李崇寧(1978)에 提示된 國語 母音의 音聲象徴은 다음과 같다.³⁶⁾

- 陽母音 : 아...어...오 (α) 輕薄系列 :
輕, 明, 清, 薄, 剛, 強, 近, 親, 小, 少, 急, 短, 狹,
濃, 細.
- 陰母音 : 어...으...우 (β) 深重系列 :
重, 暗, 濁, 厚, 柔, 弱, 遠, 疎, 大, 多, 緩, 長, 廣,
淡, 太.

또한 이를 ‘母音相對法則’이라 稱하고 陰性系를 ‘보통말’, 陽性系를 그에 對한 ‘얇잡은 말’이라 한다.³⁷⁾

Martin(1962)은 이 두 範疇를 “light isotopes” and “heavy isotopes”, and identifies /a/, /ae/, /ɔ/ and /oe/ as “light”. /ǒ/, /e/ and /u/ as “heavy”, and /ŭ/ and /i/ as either heavy or neutral 이라 하고 있다.³⁸⁾

이러한 母音 對應 現象은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ㅁ닥ㅁ닥 : 그닥그닥
글감글감 : 글강글강

36) 李崇寧(1978) : “國語音聲象徴論에 대하여”, 「언어 3-1」, p.17.

김공은(1977:69)은 이 母音 對應用法을 縮小變移(diminutive shift) 라고 이름하였는데 陽性母音과 關聯된 意味는 ‘가벼움, 작음, 재빠름’을 나타내고, 陰性母音은 ‘어두움, 무거움, 큼, 육중함’을 뜻하기 때문이라 한다.

37) 許 雄(1982) : op. cit., pp. 534-536. 이를 崔鉉培(1978:728-729)에서는 平稱을 ‘홀소리 바꿈 뜻바꿈’이라 하여 ‘밑말(본어)’라 하고, ‘지소칭’은 ‘얇잡은 말’ 또는 ‘작은 말(소어)’라 하고 있다.

38) S. E. Martin(1962) : “Phonetic Symbolism in Korean”, *Ameriam Studies in Altaic Linguistics, Uralic and Altaic Series, vol.3*,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177-189.

등은 音相이란 微細한 語感의 差異를 보여 주고 있는 例들이다.

- (1) a. 뭇등에서 으삼으삼햐햐갈래 욱해십주.
b. 으삼으삼 걷는 걸 보난 기십 산 모양이여.
- (2) a. 드랑드랑 둘러부난 낭가지 찾아지키여.
b. 경 썩른 줄에 드랑드랑 잘도 돌아 매수다.

(1)~(2)외에도 語感의 差異에서 오는 音相의 對應 現象을 보면

- (3) a. 꺾막꺾막(눈을 가볍게 깜박거리는 모양)
b. 꼬막꼬막(눈을 무겁게 깜박거리는 모양)
- (4) a. 드랑드랑(조그만 열매 따위가 매달려 있는 모양)
b. 드랑드랑(큰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 (5) a. 흘랑흘랑(휘어지는 정도가 작음)
b. 헬랑헬랑(휘어지는 정도가 큼)
- (6) a. 벌질벌질(부지런히 걷는 걸음걸이)
b. 베질베질(게으름끼가 다분히 있는 걸음걸이)
- (7) a. 땡그랑땡그랑(가볍게 울리는 소리)
b. 땡그렁땡그렁(무겁게 울리는 소리)

들과 같다. 이들 (1)~(7)에서 ‘a’와 ‘b’ 相互間 母音對應 樣相은 말의 根本的 意義를 바꾸지 않고 다만 語感上에 있어서 差異를 가져오고 있다. 濟州 方言에서는 이러한 母音의 ‘音相’들이 音聲象徴을 豊富하게 해주고 있다.

語感上的 差異에서 오는 母音의 對應現象은 中世國語에서도 그 例를 들 수 있다.³⁹⁾

- (8) a. 칙칙하다.(密) : 니 히오 ㄴ죽고 칙칙하샤. (齒齶密, 法, 七, 148)
b. 칙칙하다.(密) : 니피 칙칙하니. (葉密, 杜, 七, 二, 4)

39) 李崇寧(1984) : 「中世國語文法」, pp.129-130.

그러면 母音 각각의 對應으로 인한 語彙의 訛적 分布와 對應에 있어서 때때로 語頭音에서 보여지는 音韻論的 特徵을 대상으로 分析하되 單純反復複合副詞과 類似反復複合副詞로 區分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3.1.2. 單純反復複合副詞의 母音對應은 語基 語頭音節이 主軸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非語頭音節은 /ɨ/ 母音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거의가 典型的인 對應 樣相을 띤다.

- (9) 조작조작 : 주적주적
 오뚝오뚝 : 우뚝우뚝
 코롱코롱 : 쿠롱쿠롱
 오목오목 : 우목우목
 소복소복 : 수복수복
 코싱코싱 : 쿠승쿠승
 두고두고 : 두구두구

(9)에서 語頭音節은 각각 多樣한 對應을 보이지만 非語頭音節의 경우는 /a/는 典型的인 /ə/와 對應, /o/는 /u/와 對應을 보인다. 그런데 '코싱코싱 : 쿠승쿠승'의 경우처럼 語頭나 非語頭音節 모두 非典型的인 對應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制限된 例外에 不過하다.

그러면 語基 語頭音節의 多樣한 對應 樣相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다음 (10)~(23)은 反復되는 形態의 첫 音節 母音만이 對應되어 이루어지는 例들이다.

- (10) /ʌ/ : /ɨ/
- 꺄막꺄막 : 꼬막꼬막
 드랑드랑 : 드랑드랑
 으삼으삼 : 으삼으삼
 굴강굴강 : 글강글강
 울강울강 : 을강을강
 울근울근 : 을근을근
 ㄹ닥ㄹ닥 : 그닥그닥

브글브글 : 브글브글
흔들흔들 : 흔들흔들
홀랑홀랑 : 홀랑홀랑
홀강홀강 : 홀강홀강
플락플락 : 플락플락

(11) / ʌ / : / e /

헬랑헬랑 : 헬랑헬랑
베질베질 : 베질베질
멘삭멘삭 : 멘삭멘삭
벨착벨착 : 벨착벨착

(12) / ʌ / : / u /

몽글몽글 : 몽글몽글
푸릿푸릿 : 푸릿푸릿
문쩨문쩨 : 문쩨문쩨
문들문들 : 문들문들
문주긋문주긋 : 문주긋문주긋
부슬락부슬락 : 부슬락부슬락

(13) / ʌ / : / i /

짐쑥짐쑥 : 짐쑥짐쑥
시들시들 : 시들시들

(14) / ʌ / : / ə /

털락털락 : 털락털락
퍼작퍼작 : 퍼작퍼작

(15) / ʌ / : / a /

팔강팔강 : 팔강팔강
팔락팔락 : 팔락팔락

(16) / ʌ / : / ε /

몬들몬들 : 맨들맨들

(17) / o / : / u /

고불랑고불랑 : 구불랑구불랑

노릿노릿 : 누릿누릿

보각보각 : 부각부각

소박소박 : 수박수박

조짜조짜 : 주짜주짜

코롱코롱 : 쿠롱쿠롱

(18) / o / : / i /

곰작곰작 : 금작금작

동글동글 : 등글등글

공글랑공글랑 : 궁글랑궁글랑

(19) / wa / : / u /

와릉와릉 : 우릉우릉

팔각팔각 : 굴각굴각

(20) / i / : / i /

슬강슬강 : 실강실강

(21) / ε / : / e /

벨릉벨릉 : 벨릉벨릉

(22) / u / : / i /

문쩨문쩨 : 민쩨민쩨

무랑무랑 : 미랑미랑

물랑물랑 : 밀랑밀랑

누울누울 : 니울니울

주랑주랑 : 지랑지랑

문딱문딱 : 민딱민딱

(23) / a / : / i /

살랑살랑 : 실랑실랑

잘각잘각 : 질각질각

자락자락 : 지락지락

잘깃잘깃 : 질깃질깃

잔득잔득 : 진득진득

잘랑잘랑 : 질랑질랑

이들 (10)~(23)에서의 對應樣相들을 整理하여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3-1> 母音對應 頻度

對應樣相	分 類	語 彙 數	백 분 율
Λ : ɨ		16/34	47 %
Λ : e		4/34	
Λ : u		7/34	
Λ : i		2/34	
Λ : ə		2/34	
Λ : a		2/34	
Λ : ε		1/34	
o : u		12/15	21 %
o : ɨ		3/15	
wa : u		2/ 2	10 %
u : i		11/11	10 %
a : i		7/7	10 %
ε : e		1/1	1 %
ɨ : i		1/1	1 %
計		71	100 %

〈表3-1〉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現象으로는 語頭音節 母音對應 중 /ʌ/ 母音과의 對應이 전체 對應 語彙의 47%⁴⁰⁾를 차지하고 있음이다.

濟州 方言에서만 볼 수 있는 /ʌ/ 音은 文獻語에서 다음의 變化를 하였다.

1) 語頭音節에서는 ‘ʌ > a’의 變化

예) 돌(月) > 달, 사랑 > 사랑

2) 第二音節 以下에서는 ‘ʌ > ɨ’의 變化

예) 하늘(天) > 하늘, 가득(滿) > 가득

그러다가 16C末~17C에 들어서 語頭音節의 /ʌ/마저 ‘ʌ > a’로 變하기 始作한다. 오늘날 濟州 方言은 第二音節 以下の /ʌ/音만이 바뀌고 있고 語頭音節의 /ʌ/音은 바뀌지 않고 있다.⁴¹⁾

以上の 考察을 통하여 나타난 특이한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母音對應은 他方言에서도 볼 수 없는 점으로 /ʌ/ 母音이 存在하면서 對應 關係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10)~(23)에서 나타난 語頭音節에서의 母音對應들이 어떠한 樣相을 띠고 있는 지 圖表를 통하여 살펴보면

〈表3-2〉 語頭音節의 母音對應 樣相

分類 對應樣相	語彙數	백분율
陽母音 : 陰母音	66/71	92 %
高母音 : 低母音	32/71	45 %
前舌母音 : 後舌母音	45/71	63 %

〈表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陽母音 對 陰母音의 對應은 確實히 나타나지만 高母音 對 低母音, 前舌母音 對 後舌 母音의 對應은 뚜렷한 傾向을 보이지 않고 있다.

40) 母音對應이나 子音對應에서 나타나는 %는 그 對應의 語彙數를 根據로 한 것이고, ‘語彙’라 함은 그러한 母音, 子音을 가진 語彙를 指稱한다. 그리고 語彙의 對應은 金桂坤(1969 : 36-41)에 실린 資料를 參照하였다.

41) 李崇寧(1984) : op. cit., p. 48.

3.1.3. 다음으로 한 構成 成分의 一部를 變化시키면서 反復하는 類似反復複台 副詞의 母音對應 現象이 그 構成 成分의 一部를 交替시킬 때 그 具體的인 對應 樣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4) / i / : / a /

심숭삼숭

(25) / i / : / ə /

이썩저썩, 이제저제, 이레저레, 기영저영

(26) / i / : / a /

흥당망당, 흔들만들, 흥창망창, 흥글망글, 들곰날곰

(27) / i / : / ə /

그제저제, 그럭저럭

(28) / i / : / ε /

능활냉활

(29) / u / : / i /

울멍실멍, 울썩실썩

(30) / u / : / ə /

울통절통

(31) / u / : / a /

죽금살금

(32) / ə / : / i /

어숙미숙, 어숙비숙

(33) / ə / : / a /

어삭바삭, 어장바장, 어상바상, 얼크락달크락, 어틀다틀

(34) / ə / : / u /

어물쭈물

(35) / a / : / i /

차일피일

(36) / a / : / o /

아롱고롱

(37) / a / : / u /

악담부담

(38) / wa / : / a /

왈탕발탕, 와삭바삭, 왈각잘각, 왈그랑달그랑,
왓닥갓닥, 와쌍파쌍, 왈강달강, 왈각달각

(39) / wa / : / i /

와랑치랑, 왕강싱강, 왈랑밀랑

(40) / o / : / a /

오장간장, 오그랑다그랑, 본숭만숭

以上の (24)~(40)에서 나타난 母音 對應을 母音의 排列 樣相과 그 頻度를 圖表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3-3〉 母音 對應 頻度

對應樣相	分類	語彙數	백분율
wa:a		8/11	26 %
wa:i		3/11	
ɨ:a		5/8	19 %
ɨ:ə		2/8	
ɨ:ɛ		1/8	
ə:a		5/8	19 %
ə:i		2/8	
ə:u		1/8	
i:ə		4/5	12 %
i:a		1/5	
u:i		2/4	10 %
u:ə		1/4	
u:a		1/4	
a:i		1/3	7 %
a:o		1/3	
a:u		1/3	
o:a		3/3	7 %
計		42	100 %

〈表3-3〉에서 보여주는 類似反復複合副詞의 母音體系의 對應에는 例外的인 現象이 없지는 않으나 몇 가지의 特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先行母音으로는 거의가 閉母音(高母音)들인 ‘/wa, ɨ, ə, i, u, o/’ 音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後行母音은 開母音(低母音)들인 /a, ɛ/ 音으로 57%를 나타내고 있다. 즉 母音 對應은 대체로 앞 뒤 形態의 語頭音節 母音이 閉母音에서 開母音의 順序가 되도록 排列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이러한 對應들이 한결같이 語頭音節에 局限되어 일어난다는 점으로 둘째 音節에서나 그 以下에서의 對應의 例는 좀처럼 發見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3.2. 子音의 對應

3.2.1. 語感의 差異는 母音으로만 表現되지 않고 子音에서도 그 一部가 달라짐에 따라 그 말이 지니고 있는 根本 뜻이 바뀌지지 않고 다만 語感(말맛)만이 달라지는 音韻 對應 現象들을 찾아볼 수 있다. 音相의 差로 인하여 語減의 差를 생기게 하는 것은 어떠한 言語에 있어서든지 多小라도 없는 바는 아니지만 現代 國語에서 顯著하고 鮮明하게 多量으로 나타난다.

Martin⁴²⁾은

“Consonant alternation in Korean involves the shift from the lenis or simple consonant, to its fortis or reinforced form, and to its aspirated form. Martin refers to the resultant word forms as simple, intensive and paraintensive, with the subjective impression conveyed by such forms being progressively emphatic.

simple	ㄱ / k /	ㄷ / t /	ㅂ / p /	ㅅ / s /	ㅈ / c /
intensive	ㄱㄱ / kk /	ㄷㄷ / tt /	ㅂㅂ / pp /	ㅅㅅ / ss /	ㅈㅈ / cc /
paraintensive	ㅋ / kh /	ㅌ / th /	ㅍ / ph /	-	ㅊ / ch / ㅎ / h /

There is also the use of the simple-intensive alternation of /r/-/ll/ (ㄹ-ㄹㄹ) in medial positions.”

라 하고 있다.

그러면 濟州 方言에서 나타나는 子音의 對應들을 反復複合副詞와 類似反復複合副詞로 區分하여 考察할 수 있다.

3.2.2. 單純反復複合副詞에서 나타나는 子音의 音相에는 平音, 硬音, 有氣音이 서로 對應되거나, 語基 末音에서의 對應, 音韻添加, 音節添加 등이 對應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語感에 있어서는 별 差異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平音에 對해서 硬音이나 有氣音은 센 語感을 表現하게 되는데 有氣音이 가장 強勢된 語勢이다.

42) S. E. Martin(1962) : op. cit., pp.182-187.

이런 現象을 子音加勢法則⁴³⁾이라 하는데 音韻添加나 音節添加도 같은 現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平音 對 硬音, 有氣音과의 對應 現象과 音韻·音節添加 現象, 末音에서 子音對應 現象 각각에 對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k/ : /k' /

김작김작 : 김작김작

도근도근 : 도근도근

등긋등긋 : 등긋등긋

(2) /c/ : /č' /

움직움직 : 움적움적

움죽움죽 : 움죽움죽

(3) /s/ : /s' /

빙삭빙삭 : 빙삭빙삭

(4) /t/ : /t' /

번득번득 : 번득번득

ㄸ덕ㄸ덕 : ㄸ떡ㄸ떡

이들 (1)~(4)의 例들은 平音, 硬音의 對應이다. 이러한 對應 樣相은 語頭音節에서 일어나지 않고 非語頭音節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음 (5)~(6)의 例들은 平音 對 有氣音의 對應으로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에서 는 그리 많지 않다.

(5) /p/ : /p^h /

벨롱벨롱 : 펠롱펠롱

부작부작 : 푸작푸작

43) 許 雄(1982) : op. cit., p.536.

(6) /č / : /čʰ /

철록철록 : 철록철록
찰록찰록 : 찰록찰록
출락출락 : 출락출락
추막추막 : 추막추막

以上과 같은 平音 對 硬音, 有氣音들의 對應 現象은 한가지로 語勢의 強勢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聽覺上的 強勢를 통해 語感의 差를 느끼게끔 하고 있다.

(7) /l / : /ll /

바롱바롱 : 발롱발롱
피릉피릉 : 필릉필릉
와랑와랑 : 왈랑왈랑
베롱베롱 : 벨롱벨롱
어랑어랑 : 얼랑얼랑
아롱아롱 : 알롱알롱

(8) /m / : /mm /

까막까막 : 갈막갈막
오막오막 : 음막음막
추막추막 : 춤막춤
고비고비 : 곱비곱비

(9) /p / : /pp /

고박고박 : 곱박곱박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에는 音韻이나 音節의 添加로 인하여 서로 對應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語彙들이 보인다.

例 (7)~(9)들은 語頭末音에 한 音韻을 添加하여 對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語形이 짝거나 聽覺印象이 뚜렷지 못한 語彙에, 意味의 變化를 일으키지 않는 限度內

에서 어떤 音韻이 덧붙은 경우⁴⁴⁾로서 音韻添加로 인해 聽覺 印象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強勢의 語感を 보이고 있다.

다음 (10)~(13)에서의 音節添加 現象도 (7)~(9)의 音韻添加와 마찬가지로 한 音節을 添加함으로 인해 語形을 安定시켜 意味 傳達에 正確을 기하고 더구나 直接 語意를 도와주며 말의 意味를 深化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10) /락/

등글등글 : 등글락등글락
아글아글 : 아글락아글락
자울자울 : 자울락자울락
몽클몽클 : 몽클락몽클락
비실비실 : 비실락비실락
꺾슬꺾슬 : 꺾슬락꺾슬락
구믈구믈 : 구믈락구믈락

(11) /랑/

오글오글 : 오글랑오글랑
생글생글 : 생글랑생글랑

(12) /드/

브득브득 : 브드득브드득

(13) /르/

자룩자룩 : 자르룩자르룩

이 외에도 ‘뽀작뽀작 : 뽀지작뽀지작’, ‘악작악작 : 아그작아그작’, ‘앙작앙작 : 앙으작앙으작’ 등이 보인다. 이는 語意上 別로 變함이 없이 어떠한 音節의 添加로 인하여 다소 原義의 變化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 있다.⁴⁵⁾ 이 (10)~(13)의 音

44) 崔範勳(1981) : 「中世國語文法論」, p. 65.

45) 李熙昇(1977) : op. cit., p. 217.

節 添加는 말의 意味를 이전보다는 좀더 擴大 深化시켜 그 狀態를 늘어 쓰는 作用의 現象으로 볼 수 있는데, (14)의 例를 통해 具體的으로 理解할 수 있다.

- (14) 자울자울 : 자울락자울락
 비실비실 : 비실락비실락
 구물구물 : 구물락구물락
 악작악작 : 아기작아기작

(14)는 걷는 動作의 狀態를 나타내는 擬態語들이다. 이는 音節이 添加되기 前보다는 된 後가 動作의 狀態의 느낌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즉 ‘자울자울’ 보다는 ‘자울락자울락’이 ‘비실비실’ 보다는 ‘비실락비실락’이 ‘구물구물’ 보다는 ‘구물락구물락’이 더 動作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心理作用으로 反復·繼續되는 表現을 하기 위해서 ‘대굴’을 ‘대굴대굴’, ‘흔들’을 ‘흔들흔들’, ‘반짝’을 ‘반짝반짝’, ‘꿈틀’이 ‘꿈틀꿈틀’ 등과 같이 같은 말을 反復하는 現象⁴⁶⁾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動作을 表現에 주는 副詞語들도 濟州 方言의 內容을 豊富하게 해주고 있다.

以上の 考察을 통하여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에서의 平音, 硬音, 有氣音의 對應 現象과 音韻이나 音節添加 現象은 말의 뜻에는 큰 變動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단지 그 語感을 原義보다 強勢·深化시키며, 意味 傳達에 正確을 기하고 聽覺 印象을 强하게 하기 위한 現象으로 볼 수 있다.

(15) /k/ : /ŋ/

- 으쌩으쌩 : 으쌍으쌍
 질각질각 : 질강질강
 꼴룩꼴룩 : 꼴롱꼴롱
 줄락줄락 : 줄랑줄랑
 찰락찰락 : 찰랑찰랑
 수왁수왁 : 수왕수왕

46) 許 雄(1982) : op. cit., p. 529.

물락물락 : 물랑물랑

홀락홀락 : 홀랑홀랑

(16) /s/ : /l/

수긱수긱 : 수글수글

궁긱궁긱 : 궁글궁글

늑웃늑웃 : 늑을늑을

ㄴ붓ㄴ붓 : ㄴ불ㄴ불

이 (15)~(16)의 例들은 末音에서 子音이 對應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다. 이 外에 /k/ : /m/의 對應은 ‘부작부작 : 부잘부잘’, ‘비작비작 : 비잘비잘’, ‘은직한 직 : 은질은질’ 등이 보인다. (15)의 /k/ : /ŋ/은 調音部位가 同一하여 音相으로는 共鳴音의 有無 對應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k/는 無聲子音 系列이고, /ŋ/은 有聲子音 系列에 속한다. 이 (15)와 같은 末音에서 /k/ : /ŋ/의 對應은 많이 發見되어지는 例들이다.⁴⁷⁾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에서도 이 /k/ : /ŋ/의 對應은 다른 子音의 對應보다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音韻 現象이다. 또한 (16)에서 末音 對應인 /s/ : /l/은 無聲子音 對 有聲子音의 對應이요, 破裂音과 舌側音의 對應이다. 단 /s/는 內破로 閉鎖됨에 比하여 /l/은 多분히 母音的이어서 音相의 對應을 보인다.

3.2.3. 다음으로 類似 反復複合副詞가 그 構成 成分의 一部를 交替시킴으로서 나타나는 音相에 對해 考察하기로 한다.

아래 (17)~(24)들은 語頭音에서의 子音의 對應의 例들이다.

(17) φ : /t/

엄방덤방, 와각대각, 왈각돌각

얼통달통, 알롱달롱, 오론도론

어듬더듬, 어틀다틀, 얼룩덜룩

47) 李崇寧(1961) : 「國語造語論攷」, p. 35.

왈강달강, 울랑들랑, 아리롱다리롱
얼크락달크락, 오그랑다그랑
웁그랑댕그랑, 얼트락달트락

(18) $\phi : / \check{c} (\check{c}', \check{c}^h) /$

왈각찰각, 우묵주묵, 오진조진
이몽지몽, 울퉁절퉁, 우물쭈물
이썰저썰, 응기종기, 아릿자릿
와랑치랑, 울릉출릉, 아깃자깃

(19) $\phi : / p (p^h) /$

어쌩바쌩, 왈탕발탕, 을긋블긋
어삼바삼, 어숙비숙, 어근비근
와삭바삭, 악담부담, 울퉁불퉁
와쌍과쌍

(20) $\phi : / s (s') /$

울썰썰썰, 왕강싱강, 일금설금
울명실명, 여부룩스부룩

(21) $\phi : / k /$

아롱고롱, 와랑과랑, 왓닥갓닥

(22) $\phi : / m /$

어슴미슴

(23) $/ h / : / m /$

홍당망당, 흔들만들, 홍창망창,
홍글망글

(24) $/ k / : / \check{c} /$

게고제고, 그제저제, 갈산절산
기영저영, 그럭저럭

(25) / k / : / m /

갈판말판

(26) / č / : / s /

죽금살금

(27) / č / : / p^h /

취락퍼락

(28) / č^h / : / ϕ /

천출윤출

(29) / č^h / : / p /

차일피일

(30) / p / : / m /

본승만승

(31) / t / : / m /

들곰날곰

이러한 語頭音에서 ‘ϕ’ 子音과의 對應 現象은 中世國語에서도 다음 (32)~(34)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⁸⁾

(32) ϕ : / k /

• 움 : 漆沮 ㅅㅅ 움홀(穴), <龍, 5>

48) 劉昌博(1964): 「李朝國語史研究」, pp. 149-150.

- 굼 : 그뒤 이 굼커 개야미 보라. <釋, ㄷ, 3>

(3) ϕ : / t /

- 아리 : 前行 後行 小아리 八足 대아리 二足 <珍靑, p. 110>
다리 : 다리 과(跨) <字會, 上, 27>
- 오손도손, 우들투들, 알송달송

(4) ϕ : / p /

- 어근버근 : 功名도 어근버근 世事도 심송삼송 <珍靑, p. 75>
- 이숫 : 山 접동새 난 이숫호요이다. <樂軌, 鄭瓜享>
비숫 : 비숫비숫 <큰사전, p. 7486>
- 엇 : 물겨퓌 엇마시너. (馬外橫防) <龍, 44>
벗 : 벗 나가다. <큰사전, p. 1320>

그러면 이들 (17)~(31)의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에서 나타나는 頭音에서의 子音 對應을 다시 先行子音과 後行子音으로 나누어 다음 圖表와 같이 나타내 보일 수 있다. 便宜上 有氣音과 硬音은 平音으로 代表시킨다.

<表3-4> 先行子音 頻度

先行子音	語彙數	백분율
ϕ	46	74.6%
k	6	9.5%
h	4	6.3%
č	2	3.1%
t	1	1.5%
p	1	1.5%
s	1	1.5%
n	1	1.5%
j	1	1.5%
計	63	100.5%

〈表3-5〉 後行子音 頻度

後行子音	語彙數	백분율
č	16	25.4%
t	15	23.9%
p	14	22.2%
m	7	11.1%
s	6	9.5%
k	3	4.8%
n	2	3.1%
計	63	100%

〈表3-4〉와 〈表3-5〉에서 나타난 頭音에서의 子音 對應을 보면 先行 形態의 첫 子音으로는 ‘ \emptyset ’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74.6%)이고, 後行 形態의 첫 子音으로는 /č, t, p/가 71.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p, t/는 破裂音이고, /č/는 破擦音으로 障礙性이 큰 子音들이다. 子音의 障礙性의 정도에 의한 순서는 母音보다 子音이, 半母音보다 子音이, 摩擦音보다, 破裂音이, 鼻音보다 摩擦音이 크다.⁴⁹⁾ 따라서 類似反復複合副詞의 子音 對應은 先行 形態는 非障礙音으로, 後行 形態는 障礙音으로 始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障礙音이 先行 子音으로 나타나는 例는 좀처럼 드물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3.3. 母音調和의 變遷

3.3.1. 母音調和는 音節 連結에서 發音位置가 가까운 母音끼리 連結되는 一種의 母音同和 現象이다. 이는 두 變異 形態의 選擇이 音聲的 條件에 의해서 決定되므로 音聲的인 것임은 勿論인데, 特定한 形態素에 局限되어서 나타나는 現象이므로 個別的이요, 또한 異形態素에 있어서는 그 變異 形態의 使用은 그 條件에 따라 一定해 있으므로 必然的이다.

우리말은 傳統的으로 母音이 陽性母音과 陰性母陰, 그 사이에 하나의 中性母陰

49) 蔡 琬(1986): 「國語 語順의 研究」, pp.104-105.

을 가진 두개의 範疇로 잘 整理된 母音調和 體系⁵⁰⁾가 있다. 中世 韓國 母音 /
A/의 損失 以後 이 體系는 덜 區分되었지만 아직도 明白하다.

이들 세 種類의 配合는 結局 크게 갈리어 陽性과 陰性으로 調和된다. 여기서는
語基 二音節 以上の 反復複合副詞의 內部에서의 母音調和를 中世國語, 現代國語,
濟州 方言과 서로 比較를 통해 그 變遷 過程을 살피기로 한다.

3.3.2. 먼저 中世國語 當대의 母音調和 現象의 例를 들면 (1)~(2)와 같다.

(1) 陽性 + 陽性

- 아득아득 : 고지 아득아득 하도다. <杜초, 十八, 31>
- 다복다복 : 다복다복하야 트른비치 빗나고. <杜초, 七, 37>

(2) 陰性 + 陰性

- 구물구물 : 구물구물하논 衆生이. <蒙法, 13>
- 어득어득 : 어득어득기. <杜초, 八, 62>
- 흐워흐워 : 양지 長常 흐워흐워 하시며. <月, 二, 56>

以上の (1)~(2)들은 典型的인 陽性, 陰性끼리의 母音調和의 例들이다. 二音節
以上の 象徵語에 있어서는 한 形態素 內部的 母音은 一般的으로 陽性이면 陽性끼
리, 陰性이면 陰性끼리만이 連結되어 나타나고 兩性이 混在되는 일은 없으며 中
性母音은 兩便에 두루 調和된다.⁵¹⁾

이 母音調和 現象은 1445. A. D에 刊行된 龍飛御天歌에서 가장 規則的이며,
正音 初期의 文獻들에는 嚴格한 規制下에 母音이 서로 調和되어 나타났다. 特히 反
復複合副詞에서 이러한 母音調和 現象은 現代 國語에 이르기까지도 거의 破壞되
지 않은 狀態로 維持되어 나타나고 있다.

50) 金亨奎(1976 : 152)에서 國語의 母音體系를 세가지 系統으로 나누고 있다.

- 陽性母音—아, 오, .(애, 외, 익, 와)
- 陰性母音—어 우, 으(에, 위, 의, 위)
- 中性母音—이

51) 許 雄(1982) : op. cit., p.275.

- (3) /아/-/아/ : 딸랑딸랑, 바삭바삭
 /오/-/아/ : 모락모락, 쪽다쪽다
 /우/-/어/ : 훌쩍훌쩍, 중얼중얼
 /어/-/우/ : 얼룩얼룩
 /아/-/오/ : 알록알록, 알송달송

그런데 이 (3)의 形態들에 비해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에서의 母音調和는 대부분 破壞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 特異하다.

- (4) 끈작끈작, 굵작굵작, 그랑그랑
 늘쩍늘쩍, 물랑물랑, 물강물강
 물작물작, 수빡수빡, 풀락풀락
 슬작슬작, 푸삭푸삭, 엄방덤방
 움씩움씩, 터박터박, 걸랑걸랑
 우락우락, 들씩들씩, 슬작슬작

이 (4)의 形態들이 現代 國語의 경우라면 ‘끈적끈적, 굵적굵적, 그렁저렁, 풀럭풀럭, 터벅터벅, 엄병덤병’ 등으로 母音調和를 이룬 語詞들인데도 濟州 方言에서는 破壞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中世 國語, 現代 國語, 濟州 方言 각각이 反復複合副詞에서의 母音調和 現象들을 서로 比較하기 위해 그 語彙를 抽出 分析하여 다음 圖表와 같이 나타내 보일 수 있다.⁵²⁾

〈表3-6〉 母音調和 現象 比較

區 分	中世 國語	現代 國語	濟州 方言
母音 調和	94	461	144
	108	596	545
破 壞	14	135	401
	108	596	545

52) 母音調和 統計에 引用된 資料는 다음과 같다.

- 中世國語；南廣祐(1977):「古語辭典」, 劉昌惇(1979):「李朝語辭典」들에서 反復複合副詞 108語彙를 抽出
- 現代國語；李熙昇(1975):「國語辭典」에서 596語彙를 抽出
- 濟州方言；주26)의 統計資料에서 545語彙

위 <表3-6>에서 보이는 것처럼 反復複合副詞에서의 母音調和 現象은 中世國語에서 現代 國語에 이르기까지 거의 維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濟州 方言에서는 오히려 破壞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에서 母音調和가 대부분 破壞되어 나타나는 原因을 본다면, 첫째 /ㄹ/音 消失로 인해 적지않게 語基 二音節 以下에서 陰性母音化 하였고 때문이라 하겠다. 母音調和의 破壞는 調和의 破壞 그 自體의 恣意的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陰性母音化 現象 때문에 母音調和 組織까지 깨어졌다.⁵³⁾

이것은 ‘陽陽>陽陰’의 破壞가 일어난 것인 바 ‘조늑조늑>자늑자늑,’ ‘반늑반늑>반늑반늑,’ ‘아늑아늑>아늑아늑’ 등은 그 좋은 例가 된다.

- (5) 조늑조늑 : 조늑조늑 ㅎ야. <永嘉, 下, 45>
반늑반늑 : 반늑반늑 ㅎ도다. <灼然, 金三, 二, 28>
아늑아늑 : 고지 아늑아늑 ㅎ도다. <杜조, 八, 31>

둘째의 原因으로는 한 單語 內에서 또는 한 音節 內에서 같거나 비슷한 音韻이 바뀌어 新鮮味와 聽覺印象을 強化하여 自己 感情을 나타내기 위한 現象으로 母音에서의 異化作用의 影響이 크리라 생각된다.

- (6) 마르(粉)>가루
구름>구름
늑르(津)>나루
늑물>나물
마늘다>가늘다
마슴(心)>마슴
하르(一日)>가루

여기에는 많은 再考가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3.3.3. 母音調和 破壞 原因의 하나인 陰性母音化 中에는 /i/ 陰性母音의 頻度數가 많다. 前項의 <表2-1>의 統計 資料 가운데서 語基 末音의 中聲에 /i/

53) 劉昌惇(1961): 「國語變遷史」, p. 234.

를 가진 末音節로는 /글, 근, 금, 곳, 플, 득, 들, 듬, 슬, 솟, 롱, 림, 로, 끌/ 등 14餘種이나 되며, 이 중 頻度가 10回 以上인 것2으로 ‘글(19회), 근(15회), 곳(10회), 득(12회), 들(12회)’ 등이 있다.

그러면 이 /ɨ/音이 語頭와 非語頭에서의 分布를 圖表로 나타낼 수 있다.

〈表3-7〉

語頭 音節	非語頭 音節	備 考
38 語	67 語	105 545

이렇듯 많은 語彙를 가진 末音節 /ɨ/ 陰性母音은 語頭音節이 陽性, 陰性 혹은 中性을 가리지 않고 連結되어 나타난다.

- (7) 바글바글, 부글부글, 공글공글
 생글생글, 싱글싱글, 촌글촌글
 울글울글, 세글세글, 느글느글
 산글산글, 진글진글, 우글우글
 구글구글, 스글스글, 핏글핏글
 부글부글, 건글건글, 주글주글
 이글이글, 소글소글, 지글지글

(7)의 例들은 /ʌ/와 對應 關係에 있던 /ɨ/가 非語頭音節에서 16C에 ‘ʌ>ɨ’의 變遷을 겪음⁵⁴⁾으로 해서 非語頭音節 位置에서는 中性化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語頭音節에서 /ɨ/는 극히 一部를 除外하고는 반드시 陽性이나 中性母音과만 連結된다.

- (8) 슬강슬강, 글강글강, 들곰날곰
 끈닥끈닥, 끈작끈작, 슬작슬작
 굶작굶작, 드랑드랑, 늘씩늘씩

54) 李基文(1980):「國語史概說」, p.200.

으쌩으쌩, 능쌩능쌩, 흘락흘락
그랑그랑, 흘그랑흘그랑, 흐랑흐랑

이는 /ɨ/가 語頭音節에서 'ʌ>a'로 變遷을 겪었기 때문에 非語頭 位置와는 달리 여 전히 /ɨ/가 陰性母音의 性格을 보여주고 있음을 證明해 준다. /ɨ/는 원래 陰性母音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데, 擬聲語나 擬態語의 象徴語에 있어서는 /a, o /나 /u, ə/에 서로 調和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9) /o-ɨ/ : /u-ɨ/

보슬보슬 : 부슬부슬
쏘근쏘근 : 쭈근쭈근

/a-ɨ/ : /ə-ɨ/

산들산들 : 선들선들
반들반들 : 번들번들

이처럼 母音調和에 있어서 語頭音節에서는 陰性母音의 性格을 지니고, 非語頭音節에서는 中性母音의 性格을 보이는 母音의 存在⁵⁵⁾는 母音의 變遷이라는 通時的 立場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55) 李基文(1980:200)에서는 이러한 性格의 /ɨ/를 部分中立母音이라 하기도 한다.

Ⅲ. 結 論

지금까지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構造 分析에서 나타난 特徵들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1. 反復複合副詞에서의 反復은 單純한 音의 反復이 아닌 意味의 反復이기에 종래에 疊語라 하여 複合語와 獨立시켜 認識하였던 것을 止揚하여야 한다.

1.2. 濟州 方言 反復複合副詞의 造語(word formation)는 주로 ‘語根(語幹)’의 反復과 ‘語根(語幹)+接尾形態素’의 反復이며, 語基 品詞別로 分類하면 ‘副詞+副詞’의 形態가, 語基 音節數로 보면 二音節語가 대부분이며 四音節의 경우로는 ‘와르릉탕와르릉탕’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1.3. 反復複合副詞는 다른 複合語와는 달리 統辭論的 構成의 特徵을 強하게 보이나, 形態論的 構成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두 自立 形式의 意味上 서로 緊密하여 하나의 單位로 取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音聲象徴은 象徴語의 末音形態部가 擔當하는데, 象徴語 대부분이 反復複合副詞이기에 그 語基 二音節語를 中心으로 末音形態를 分析해보면, 現代國語에서는 ‘-k/>/-l/>/-ŋ/’의 順으로 나타나지만 濟州 方言에서는 ‘-k/>/-ŋ/>/-l/’의 順으로 -ŋ/>/-l/ 音이 -l/音보다 많음이 特異하다.

2.2. 現代國語에서는 反復複合副詞 末音形態部에 /t/ 音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나, 濟州 方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음도 指摘할 수 있는 特徵이다.

2.3. 語基 末音節의 母音을 系列別로 보면 現代國語에서는 陰性母音이 陽性母音보다 배 이상의 分布를 보이거나, 濟州 方言에서는 정반대인 陽性母音이 배이상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濟州 方言 言衆들의 陽性母音 選宜度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3.1. 濟州 方言 單純反復複合副詞의 母音 對應에서 나타나는 特異한 점은 他地方에서 볼 수 없는 /ʌ/ 母音과의 對應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子音의 對應樣相은 平音, 硬音, 有氣音의 對應, 音韻·音節添加 現象, 末音에서의 子音 對應 등이 보인다.

3.2. 類似反復複合副詞에서의 母音對應은 대체로 先行母音은 閉母音, 後行母音은 開母音으로 나타나며, 子音對應은 先行 形態의 첫 子音은 障礙性이 작은 'ϕ' 이 오고, 後行子音으로는 障礙性이 큰 /č. t. p/ 音이 놓인다는 점이다.

4.1. 反復複合副詞에서의 母音調和 現象을 보면 現代國語에서는 대부분 維持되어 있는 편이나, 濟州 方言에서는 오히려 破壞되어 나타나는데, 그 原因은 /ʌ/ 音의 消失로 인한 非語頭音節에서의 陰性母音化 現象과 聽覺印象을 強化하기 위한 母音에서의 異化 現象으로 보아진다.

4.2. 陰性母音 中에는 /i/ 音이 많은데, 이는 非語頭音節에서 'ʌ>ɨ'의 變遷을 겪음으로써 語頭音에서는 陰性母音의 性格을, 非語頭音에서는 中性母音의 性格을 띠고 있다.

參 考 文 獻

- 姜成一(1982), 國語學論考, 螢雪出版社.
- 김공은(1977), '韓國語音聲象徴', 한글 13號.
- 金公七(1977), 方言學, 正向出版社.
- 金桂坤(1969), "現代國語의 造語法研究", 仁川教大論文集, 4輯.
_____ (1978),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눈외 허웅박사 환갑기념논문집.
- 金敏洙(1982), 國語意味論, 一朝閣.
- 金錫得(1975), 韓國語研究社, 延世大學校出版部.
- 金榮敦(1965),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朝閣.
- 金智弘(1986), "몇 語形成 接尾辭에 대하여", 白鹿語文, 創刊號篇,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研究會.
- 金亨奎(1976), 國語史概要, 一朝閣.
_____ (1978), 國語學概論, 一朝閣.
- 朴炳采(1971), 譯解訓民正音, 博英社.
- 朴用厚(1960), 濟州方言研究, 동원사.
- 徐炳國(1975), 國語造語論, 경북대학교출판부.
-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劉昌惇(1961), 國語變遷史, 通文館.
_____ (1964), 李朝國語史研究, 宜明文化社.
_____ (1978), 語彙史研究, 二友出版社.
_____ (1979),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 李基文(1980),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李崇寧(1948), 國語造語論試考, 震檀學報, 18號.
_____ (1961), 國語造語論攷, 乙酉文化社.
_____ (1978), "國語音聲象徴論에 대하여", 언어 3·1.
_____ (1984),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李英姬(1982), “濟州島方言의 象徴語研究”, (碩論, 濟州大學校)
- 李翊燮(1965), “國語複合名詞의 1 C 分析”, 國語國文學, 30號.
- (1983), “現代國語의 反復複合語의 構造”, 白影鄭炳昱先生還甲紀念論叢
 I. 國語學研究, 新丘文化社.
- 李熙昇(1977),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 전재호·박병채외(1982), 新國語學, 螢雪出版社.
- 趙奎高(1958), “疊用副詞의 考察” 語文學 3.
- 秦聖麒(1977), 南國의 民謠, 正音社
- 蔡 琬(1986), 國語 語順의 研究, 國語學叢書 10, 塔出版社.
- 崔範勳(1981), 中世韓國語文法論, 二友出版社.
- 崔鶴根(1977), 國語方言研究, 通文館.
- 崔鉉培(1961), 우리말본, 正音社.
- 許 雄(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_____ (1976), 言語學概論, 正音社.
- _____ (1982), 國語音韻學, 正音社
- 玄容駿(1956), “濟州 方言에서의 「ㅇ」考”, 國文學報, 第一輯 濟州大學 國語國
 文學會.
- _____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研究(資料編), 精研社.
- 黃希榮(1979), 韓國語音韻論, 二友出版社.
- 國語辭典, 民衆書館, 1975.
- 新國語辭典, 東亞出版社, 1980.
- 補訂古語辭典, 南廣祐, 一潮閣, 1977.
- Brederick, J. P. (1975), Modern English Linguistic. Tomas. Y. Gowell co.
 Inc.
- Gleason Jr., H. A. (1955),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Re-
 vise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 Garrigues, S. L. (1984), The Structure and Phonology of Mimetic words in
 Korean and Japanese, 濟州大學校 論文集(人文學篇) 第19輯.

o Martin, S. E (1962), "Ph onetic Symbolism in Korean", American Studies in
Altaic Linguistic, Uralic and Altaic series Vol.13,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Structural Study of Repetitive Compound Adverbs in Cheju Dialect

Kang Kong-t aek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ong-sik

This thesis aims at introducing some features in the process of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petitive compound adverbs in Cheju dialect. The following is the abstract of the structural analysis.

1. As the word 'repetitive' in repetitive compound adverbs is not the simple repetition of sounds but the repetition of meanings, we should not think any more that repetitive compound adverbs were one thing and compounds called duplicated forms before another.

2. The word formation of repetitive compound adverbs in Cheju dialect is mostly made by the repetition of roots [stems], and the repetition of 'roots [stems] and ending morphemes.'

3. Classified into basic parts of speech, many repetitive compound adverbs consist of the forms of 'adverbs and adverbs', and classified into the number of syllable bases, they are most of disyllables, and in case of tetrasyllables, only Warürüngt'ang-Warürüngt'ang [sound of a child plaining noisily] appears.

4. Repetitive compound adverbs, different from other compounds, show strongly the characteristics of syntactical constructions. But show strongly the characteristics of syntactical constructions. But they can be treated as morphological construction as two free forms are meaningly close to each other and can be handled as one unit.

5. In the analysis of ending morphemic parts with disyllables in the center repetitive compound adverbs in Korean come out in the order of '/-k/ > /-l/ > /-ŋ /', But in Cheju dialect they are in the order of '/-k/ > /-ŋ / > /-l /', which shows that /-ŋ / is more than /-l/.

6. It is characteristic that in Korean the sound 't' appears mostly in the ending morphemic parts of repetitive compound adverbs, but in Cheju dialect it can never be seen.

7. When the vowels of ending syllable bases are grouped into categories, dark vowels in Korean are distributed more than twice as much as bright vowels. while in Cheju dialect bright vowels appear more.

8. A special phenomenon in the vowel correspondence of simple repetitive compound adverbs in Cheju dialect is the fact that the vowel 'ㅏ' correspondence holds more than a half differently from other dialects.

9. In the vowel correspondence of semi-repetitive compound adverbs, front vowels usually indicate closed vowels [low] and back vowels indicate open vowels [high]

10. In view of consonant correspondence, initial consonants of front morpheme become /ϕ / with little obstruction and ending consonants /č, t, p / with much obstruction.

11. The vowel harmony phenomenon of repetitive compound adverbs is mostly kept in Korean but shows to be broken in Cheju dialect. It can be said that its cause is the dark vowelized phenomenon in noninitial syllables caused by the loss of the sound 'ㅏ' and the discord phenomenon to intensify acoustic image.